

핵심 연구성과

Omni View 서비스 개발 및 검증 완료

본 연구를 통해 Omni View(Sync View, Point View, Interactive Time-Slice View 등) 서비스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하였다. 초다시점 실시간 렌더링 시스템 구축 및 멀티단말 기반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3D 그래픽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I/UX 구현, WCDMA 및 6AxI 모듈이 포함된 DGPS 위치 송수신기 개발, 볼스레이 트랙에서 FHD/UHD 실시간 영상 전송 실증을 완료하였다. 특히 2차년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 2월 4일 크로스 컨트리 경기장에서 이벤트 시연을 완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촬영, 플랫폼, App 등 인터랙티브 Multi-view 서비스의 핵심 기술 개발과, 플로팅 Live 홀로그램 기술을 완료하였다.

주요 성과

- (Omni-view) 현장 몰입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미디어 서비스 실증
 - 선수 1인칭 관점의 Sync view 서비스
 - 원하는 선수/위치를 시청할 수 있는 Point view 서비스
 - 다양한 각도에서 시청할 수 있는 Interactive time-slice view 서비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적용 및 확산 효과 노린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서 경기 관련 몰입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Omni View 서비스 적용할 계획이다. 선수 정보 및 위치 트래킹 기반 Point View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감형 경기 정보 제공을 위한 선수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Sync View 서비스는 1인칭 Sync View Premium 방송 서비스 제공, 경기에 출전한 선수 시점에서 다양한 스포츠 경기 장면의 UHD 급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Interactive Time Slice 서비스는 다양한 시점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로 여러 시점의 영상을 하나의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 대용량 5G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크로스컨트리를 적용하여 볼스레이 및 방송종목 경기에 적용하여 국내 운영을 이끌고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y event

- '16~'17 시즌 평창 테스트이벤트(국제대회)
 - 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Skiathlon 남자 30km, '17.2.4.) Omni View 테스트
 - 2017 ISU 4대륙 피겨선수권 대회('17.2.16.~19.) Interactive Multi View 테스트
 - 2017 BMW IBSF 볼스레이&스켈레톤 월드컵('17.3.6~7.) Sync View 테스트



<2017 BMW IBSF 볼스레이&스켈레톤 월드컵, Sync View 테스트>

- KT Omni-View 서비스 전시 및 시연
 - 창조경제박람회 전시('16.12., COEX)
 -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 국회 시연('17.2., 국회의원회관)
 - 미래부 장관/기자단 시연('17.2., 평창)
 - 토마스바흐 IOC 위원장 시연('17.3.17) 등



Key words

- **Omni View**: 대리 현장감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형식의 미디어 서비스 (Sync View, Point View, Interactive Time-Slice View 등으로 구성)
- **Sync view**: 선수의 시각에서 관객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Point view**: 장시간 수많은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원하는 선수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
- **Interactive time-slice view**: 다양한 각도에서 선수를 볼 수 있는 서비스